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 신성중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대학부와 청년부가 중심이 되어 하기 농어촌전도대 총 9대 파송

7월 31일(월) ~ 8월 4일(금)

전도위원회(위원장 강협 장로)에서는 오는 7월 31일(월) ~ 8월 4일(금)까지 각 지교회 및 특수교회에 하기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하기로 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농어촌지역에 전도대를 파송하여 전도활동, 계몽활동 등을 벌이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있어왔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미자립 농어촌 교회와 특수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펴고 있다. 전도회가 각 교구별로 세분화되면서 각 교구별로 지원하는 농어촌교회에 각 교구 식구들로 구성된 전도팀이 나가서 늘 새롭고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꾸준히 전도활동을 펴왔다.

금년에는 대학부·청년부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회와 특수 단체에 파송하게 된다. 또한 예년에는 우리 교역자가 함께 참가하여 전도집회를 인도하곤 했는데 금년에는 지원하는 교회 교역자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현지 실정에 적응토록하기 위하여 교역자는 파송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파송된 전도대는 현지 교회 담당 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현지 사정에 맞는 전도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로 할 일은 전도활동으로 낮에는 축호전도, 밤에는 부흥집회를 실시하여 낮동안 전도한 사람을 저녁에 초대하여 부흥집회에 참석하게 된다. 흔히 많이 하게 되는 여름성경학교나 주교 보조활동도 전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했다. 특히 금년에는 대학부와 청년부로 구성된 전도대를 파송,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이 봉사, 전도활동을 실제적으로 감당해보는 훈련의 장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전도대의 일정을 일괄 정리 관리한다. 7월 22일(토)에는 전도대원 훈련 및 기도회, 7월 29일(토)에는 전도대별 모임, 8월 19일(토)은 종합전도 보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각 전도대당

10명 정도로 총 9개대가 파송되는 이번 전도대의 비용은 전도위원회에서 산출, 지원하고 있다. 파송교회 및 담당전도대는 다음과 같다.

파송교회	주소	전화	전도대
북상교회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상1리35	0373-72-4506	청년1부
신망애교회	경기도 여주군 건면 도전리 884	0337-82-0013	대학부
NMC병원			
남부민중앙교회	부산 서구 남부민 3-300	051-242-9365	대학부
성은교회	전북 남원군 아영면 입안리 681	0671-34-5384	대학부
해성교회	충남 서산군 성연면 해성리 181	0455-62-7950	대학부
해군교회	경남 진해시 맹곡 사서함 88-1-19	053-49-4057	대학부
새생명교회	충북 음성읍 초천리 1구 1345	0446-72-6252	대학부
포병연대교회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0348-54-0804	대학부
춘천소년원	강원도 춘천시	02-888-4758	박양덕 전도사

교육관 냉방 공사 완료

교회는 그동안 2개월간에 걸친 교육관 냉방공사를 완료했다. 지난해의 혹서 가운데 큰 곤역을 치른 뒤 중앙집중식 냉방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여 실시된 냉방공사로 금년을 최적인 분위기에서 예배 및 집회와 각종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각 층마다 대 집회실 2개와 2개 부서 부속실로 나뉘어져 있는 교육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층을 4개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역예배 및 금요집회 쉬기로 7월 19일(수)~ 9월 8일(금)

교회는 하절기를 맞아 각 부서의 여름 계절학교와 계속되는 휴가 등을 고려하여 예년과 같이 7월 19일(수)부터 9월 8일(금)까지 구역장 공부 및 구역예배, 금요 집회를 쉬기로 했다.

기도원 식대 인상

충현기도원은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보다 좋은 식사제공을 위해 식대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찬양대별 여름수련회 실시

지난해에 찬양대 연합수련회로 모였던 찬양위원회는 금년에 각 찬양대별로 수련회를 갖기로 하고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다.

영적인 성장의 계기와 대원 상호간의

사랑과 섬김의 장으로 찬양대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모이는 이번 수련회는 찬양대원들에게는 더 할 나위없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찬양대	일정	장소	강사
가브리엘	7월 27일-29일	수원 합동신학원	김찬곤 목사 현상민 목사 이영조 교수
임마누엘	8월 13일-16일	거제도 에스더수양관	현상민 목사 장기범 교수
할렐루야	8월 14일-15일	용인 벨엘센터	김영준 집사
아 멘	8월 14일-16일	양평 기술산업연수원	조동원 목사 최광덕 집사
시 온	7월 17일-18일	충현 기도원	이수철 집사
호 산 나	6월 22일	과천 청소년 수련장	송숙자 집사
핸드 벨	7월 17일	수원 합동신학원	현상민 목사 송재월 선생

예신부 교육과정 개편 및 공개강의 시작

예신부(예비신랑신부 교육부, 부장 박인세 장로)는 그동안 실시해오던 교육과정을 일부 보완 개편하여 더욱 알찬 강의와 성경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결혼 신청자에게만 제한하던 강좌를 모든 미혼남녀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관

208호에서 모이는 예신부 집회시간은 매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이며, 1부 강의와 2부 그룹별 성경공부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다.

새로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회수	강의	강사	그룹성경공부
1주	성경적 결혼관	장봉생 목사(지도목사)	배우자 확인
2주	배우자 가족관계	이경현 권사(예신부 부감)	가족초청, 기념일
3주	검소한 혼수문화	전성자 권사(소비자교육원장)	혼수준비 사례
4주	건강한 자아형성	박종학 집사(신경외과 전문의)	성경과 습관
5주	가족갈등 처리법	이건숙 사모(작가)	공개토론
6주	가정경제생활	정지자 사모	부부역할
7주	가정법률상식	신선길 집사(변호사)	가정상식
8주	가정의학상식	손 철 집사(산부인과 전문의)	부부생활실제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창단

2부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었다. 임마누엘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기로 하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찬양위원회는 지난 7월 정기당회의 승인을 얻어 7월 9일 저녁 찬양예배시에 대원을 임명함으로 창단하게 됐다. 대장 차신득 장로, 부대장 이계인 집사, 지휘 장기범, 편곡 김영아 선생, 대원은 바이올린 조현혜외 19명으로 구성됐다.



충현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43 ●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 (2)

(계 20:7-15)

1. 천년 후의 일을 보여주심

(1)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하는 일

7, 8절에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지상 백성의 축복이 다 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탄마귀를 잠깐동안 내어놓는데 그때 사탄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이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일,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일과 싸움을 붙이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곡은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벳의 후손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즉 북쪽에 있는 나라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곡은 에스겔서 38장 17절에 보면 북쪽에 있는 부족의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8장 1, 2절에 보면 곡은 "메섹과 두발의 맹주인 마곡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메섹'이라는 말은 '모스크바'의 어원인 '모스헤우'라는 말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음으로 '두발'이라는 말은 고대 시베리아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곡은 바로 러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단순히 러시아 한 나라만이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아닙니다. 좀더 넓은 의미로 붉은 용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산주의의 본산지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기독교와 계속해서 투쟁하는 모든 반기독교적인 나라들이 포함된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55억 인구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40억이 넘습니다.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

(2)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이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이유는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가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싸우게 될텐데 그들과의 싸움과 그 시련은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되지는 않고 아주 짧은 시기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러시아의 중주국인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이제 서서히 남은 나라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도 시간 문제입니다. 짧은 시일 내에 끝날 것입니다.

(3) 사탄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는 일

10절에 "또 지화를 미혹하는 무리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마귀가 아무리 싸움을 붙이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있지만 한 가지 저들의 마지막 결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유황불못에 던지우

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황불못에서 무슨 일을 할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옥에 갇혀있을 때에 영원토록 밤낮없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마 5:29, 30, 7:13, 8:12, 18:8, 22:13, 25:41, 25:46, 막 9:43, 48, 롬 2:5-8, 9:22).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이 뭐 별것이려구. 다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지옥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친지나 이웃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인도해야 합니다.

(4) 주님의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를 끌어올리십니다(살전 4:16-18). '끌어 올린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휴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끌어 올린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날개가 달려서 휘 하고 날아간단든지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환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당분간 통치하게 됩니다. 넷째는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집결하게 됩니다. 현재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사탄은 쾅쾅 뿜어서 불못에 던지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가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2.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

11, 12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1)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라고 했는데 여기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지옥이 뭐 별것이려구. 다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지옥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친지나 이웃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인도해야 합니다.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보좌의 존엄성과 성결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판사를 속일 수도 있고, 인간이란 불완전하기 때문에 숨겨거나 그저 묵인하고 이력저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뺨으로 어떻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흰 보좌앞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2)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 때에 일어나는 현상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영적이든 혹은 문자적이든 막고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에 타서 없어지듯이 더러운 것들은 다 타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개조가 됩니다(벧전 3:10).

바로 그때, 즉 하늘과 땅은 간 곳 없어지고 우주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심판대를 만들어 놓으실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보좌입니다.

(3) 심판이 시작되면 그 앞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서 있게 됨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영혼만 죄짓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 받을 때도 육체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보좌 심판의 대상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로 순교자들과, 둘째로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입니다(계 20:4-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첫

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백보좌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12절을 보면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첫째로 '책들', 곧 심판을 하기 위해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수형으로 '책들'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리고 얼마나 자세히 기록을 했으면 '책 한권'이 아니라 '책들'이겠습니까? 둘째로 '다른 책',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심판의 결과는 불못에 던지우는 것입니다(14절).

이 불못은 불과 유황으로 끼치지 않고 타는 곳입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 우리 부모님 지옥에 가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물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다름아닌 부모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잘 믿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재판장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행위록에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한 것들만 자세히 가득가득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 1차 성지연구를 마치고서 ▶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니이다

성봉환

<목사, 교구위원회 · 제1교구 지도>

95 예수사랑 큰잔치를 마치고 2주간 동안 결신자를 부지런히 돌아보며 등록하도록 동분서주하고서, 1차로 목사 9명 전도사 16명은 '성지연구를 단단히 하리라.....' 다짐하며 집을 대강 꾸렸다.

6월 26일 오후 3시 당회장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큰 은혜를 받는 성지연구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기도와 '단체행동에 금이 가는 여행을 삼가라'는 말씀을 받고서, 교회당을 떠나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대한항공으로 카이로를 향해 떠났다. 가는 동안 기내에서 3번의 식사가 나왔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모두들 거뜬히 해치우는 실력을 과시하였다.

화요일(27일) 아침에 카이로 공항에는 이준교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마중을 나와계셨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집트 특유의 냄새가 물씬 풍겨들어왔다. 이집트의 식사는 쉽지는 않았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으로 알고 들었다. 마차도 다니고, 당나귀도 다니고, 버스, 택시, 승용차 등이 다니며 신호등이 별로 보이지 않아 아무데로나 길을 건너 다니는 사람들. 이들이 사는 주택과 더불어 죽은자의 주택이 길을 경계로 하여 함께 있는 카이로. 이 국제도시는 그야말로 고대와 현대가 함께 숨쉬는 도시이며, 죽음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도시였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그 크기와 웅장함에 있어서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으나 생명 없는 사망의 문화요, 사망

의 냄새였고, 어쩔수 없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임을 증거했고, 참 생명을 모른 사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예수님의 피난 교회에 들었는데, 회



교국가 안에 있는 유일한 개신교 박물관이 있었다. 파피루스로 된 많은 사본들을 볼 수 있었다.

카이로를 떠나 시내산에 가는 길은 버스로 하루길이었다. 가도가도 사막이었다. 정말이지 물없이 살 수 없는 사막이요 광야였다. 그늘 하나 없이 햇빛은 아주 뜨거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늘나라 양산인 구름기둥은 너무나 크신 이적의 선물이었겠다! 꼭두새벽에 오른 시내산에서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보며 예배를 드렸다.

목요일(29일) 오후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김주경 선교사님을 만났다. 어찌나 바빠 움직이는지 참 대단한 기동성이었다. 여기에 다 기록할 수는 없으나, 쿤란의 사해사본 발견 장소들, 사해의 엄청난 소금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종려나무, 겨자씨, 싯딤나무,

에셀나무, 아네모네, 쥐엄열매, 가시관 나무, 베드로 고기 등등 많은 현장 교육이었다. 조그만 땅덩어리를 낙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유대인의 엄청난 힘을 볼 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중심지로서, 마가의 다락방과 겟세마네와 빌라도의 재판석과 골고다와 감람산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이 조그만 지역 곳곳마다 역사의 씨와 줄이 흐르고 있다니.....

월요일(7월3일) 오후에 텔아비브 공항을 떠나 터키로 향하려는데 잠깐 비상이 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항에 폭탄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폭탄 제거반이 투입되어 폭탄을 제거한 것이다. 과연 이스라엘은 늘 긴장속에 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터키에서 살펴본 초대 7교회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사도들이 보살핀 교회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니..... 이제는 흔적도 희미하고, 나라 전체는 회교의 발아래 밟히고..... 이 어찌된 일인가? 최초 그들은 복음안에 서 있었으나, 점차 마리아 숭배 등등 말씀에서 잊지 못하고 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혀 변질되어 버렸기에 더 이상 참 교회는 서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전략, 이교의 밥이 되고 만 것이다. 아! 말씀의 반석위에 서지 못한, 아니 한 교회의 종말이 이렇다니.....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현황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시청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 아닌가!

목요일(6일)에 독일로 가서 육호기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개혁자 루터의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었다.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신앙의 용기인가!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터키에서 죽음의 냄새와 인간의 전통과 변질된 복음의 결과들을 보고 온 우리는 말씀을 회복한 현장을 밟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행보였다.

그렇다. 지금도 우리의 갈 길은 끊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요 그 운동만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길인 것을 다짐하면서 평생 그리 살리라 기도하면서 독일을 떠나 김포에 내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대하시도다!

◀ 우리는 지금 / 장년1부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며 ▶

생활 속에 천국을 이루자!

40 대의 성숙된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여 성도의 교제와 함께 성경공부를 가장 재미있게 하는 곳이 충현교회 교회학교 장년1부이다.

연령계층이 만 40세부터 49세인만큼 생활도 안정되고, 자녀교육도 어느정도 뒷바라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하다거나 젊은이들처럼 바쁜 일정을 잡지 않아도 푸근한 나이들이어서 서로 부담감이 없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직분자이어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가 그 어느 계층보다 빨리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심정,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려는 욕심들 때문에 집회시간엔 활기가 넘친다.

장년1부는 금년들어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95년 12월엔 500명 출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장이 하 부감, 그리고 42명의 교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40대 남녀성도 인도에 열과성의를 다하고 있다.

특히 장년1부는 이한수 목사(충신대

학 신학대학원 교수)를 지도목사로 모시고 매주일 고린도전서 강해를 듣고 있다. 말씀에 은혜가 넘치며 이곳저곳에서 주일 12시 30분을 기다린다고 한다. 어떤 여성도는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어떤 남성도는 간사실에서 간사일을 보다가 시간계획을 짜서 장년1부 집회에 참석한다.

초창기 200명도 회집되지 않았던 장년1부는 5월 말에 되자 300명이 넘게 되어 부득이 집회실을 414호에서 407호로 옮겨 6월 둘째주일부터 회집하고 있는데 현재 350명의 40대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 몇주 안되면 400명 출석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은혜의 찬송으로 시작되는 장년1부 집회는 특별한 격식없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약 40분간 듣게 되는데, 이 시간엔 지도하는 이한수 목사의 인도에 따라 은혜 넘치는 찬송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들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재치있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순간이어서 마음이 들뜨기 마련이다.

영국 신사공의 이한수 목사님은 올해 4학년 2반(?) 학생으로 가장 40대를 이해하고, 40대의 영적 고민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진맥해서 처방하기 때문에 한번 이곳에 오신 성도는 장년1부를 잊지 못한다.

요즘의 성경공부는 교회내의 분쟁, 교인들 간의 법적 소송문제가 끝나고 결혼문제(이혼문제 포함)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영적 은사의 남용, 성만찬,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불신문제 등에 대해 성경적 해답이 바르게 다루어지게 된다.

95년 여름철을 맞으며 장년1부는 17번째 여름수련회를 또 준비했다. 「생활 속에 천국을 이루자」라는 주제를 걸고 오는 8월 14일(월) 오전 10시부터 15일(화) 오후 4시까지 충현교회에서 개최되는데, 강사 역시 이한수 목사님이다.

주제성구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신자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양식과 의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만 몰

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귀한 가치들,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할 것에 이번 수련회의 기본적 목표를 삼고 이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말씀에 녹아지고 시원해지는 여름! 미니 체육대회와 산상기도회와 찬송, 장기자랑 그리고 반별대항, 자유토론 등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말씀에 굶주린 분은 누구나 오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장년1부 집회 모습



◀ 여름단기선교의 중요성 ▶

여름 단기선교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

1. 현지의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접하므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한다

막연히 알았던 선교사의 일상생활과 사역의 어려움을 접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되며 선교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선교사의 삶을 배우게 되므로 선교에 대하여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선교사가 정의 어려움을 보기도 하고 사역의 어려움과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선교사를 도우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도전을 받게 된다. 선교지를 생각할 때마다 사역을 같이 나누었던 현지 선교사의 삶을 생각하게 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2. 여름 전도단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의 성장을 도모한다

여름 단기선교를 통해 자기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며, 선교지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하게 되고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의 준비 이상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며, 매일매일 선교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영적전쟁을 접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훈련의 필요성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단기선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과거의 생활을 떠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께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로의 신앙의 성숙을 체험하게 된다.

3. 타문화권 접촉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다른 문화의 풍습과 언어와 기후와 음식과 사람들을 대하여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보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 나보다 좀 못하게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많은 현지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그들의 삶의 문제에도 우리 주님이 해답이 되신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한 영혼으로 존중하며 다른 문화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겸손하고 문화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으로써 복음전파에 힘쓰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언어를 바라보며 영혼을 위한 깊은 사랑을 새롭게 한다.

4. 팀사역을 통하여 섬기는 자세를 배우게 한다

선교지 단기선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팀사역이다. 같이 친하게 지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게 마련이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중심의 삶이 아닌 남을 위하여 섬기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팀사역을 배우게 된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되며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함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는 팀사역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5. 보고와 간증을 통하여 교회에 선교의 열을 전하게 한다

단기선교의 주요 전략은 단순히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기선교를 보냄으로 보내는 자들을 훈련하며 교육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내기 전부터 그들을 위하여 기도 후원자를 준비하고 교회가 같이 모여 기도하고, 함께 파송하여 처음 파송부터 돌아온 후에 선교보고가 교회 전체에 사역인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돌아온 팀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의 선교비전과 선교보고를 교회에 전함을 통해서 보낸 자들이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교회가 동참한 선교의 열매를 놓고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6. 장기사역의 가능성을 타진할 기회를 갖게 한다

여름단기선교팀들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장기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좀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선교경험과 사역을 제공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확신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며 또한 이미 장기선교를 위해 결정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훈련장소를 제공한다.

7. 보내는 교회가 된다

보내는 교회는 자기 교인들을 훈련시켜 파송하는 교회요, 선교사 지망생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교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여름 단기선교 후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로 보내는 교회를 연습하며 또한 탐으로 보냄을 통해서 단원들이 자기의 모교회를 보내는 교회로 생각하며 그 교회에서 파송받고 싶어한다. 또 전교인이 모여 파송식을 가짐으로 '보내는 교회'의 선교정책이 전교인에게 전달되어 선교사 파송사역을 격려하게 된다.

제4회 충현올림픽

· 1995년 10월 3일(화)

·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7/18(화) 오후 3시 실종자 구출 및 실종자가족을 위한 연합기도회 설교(교육대학 강당)
7/20(목) 동산교회 김창수 목사 위임예배 설교
· 신성종 목사 : 7/18(화) 교회학교 연합 '95여름계절학교 개강예배 설교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충현의 교회학교가 여름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며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이 은혜충만, 성령충만, 말씀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8. 삼풍백화점 붕괴로 슬픔을 당한 가정과 폭우로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다시는 이와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이스라엘 김주영 선교사

‘선교용 성경책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세계선교회에 평안의 문안을 드립니다. 늘 기도해주시심으로 이스라엘에서 주어진 사역에 충실하며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함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의 평화협상 노력과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의 권한 확대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달간 계속되는 테러의 위험은 시한폭탄같이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와중에서도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개월여 동안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에 나가면서 많은 것도 배우며 또 그들을 위한 구체적 기도와 협력을 갖게됨을 감사합니다.

성경보급은 소련계 유대인들의 이민에 따른 신규약 성경보급 사역에 계속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순례자들의 헌금이 인쇄와 보급에 드러집니다. 성경보급을 위한 인쇄비는 권당 \$5입니다. 수년간 이곳에 유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성경보급도 해왔는데 요즘 이곳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관계로 이들을 위한 성경보급이 또한 요청됩니다. 대학 내에도 외국인들을 위한 성경보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선교용 성경책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중국어, 태국어, 루마니아어 등).

당회의 결정에 따라 성지연구소 부지 구입을 위한 물색을 의뢰하고 여러면으로 노력을 합니다만은 매물도 적고 또 설령 매물이 있어도 계약을 할 수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일 추진에 난감합니다.

현재 예루살렘 남동부에 위치한 단독건물이 성지연구소로 적격인데 가격이 좀 비싼 것과 이미 실내구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목적에 맞게 수리해야 될 집이 있습니다. 또한 대지구입을 위해 여러 곳을 물색중입니다. 대지만 구입되면 연구소 목적에 맞게 설계와 시공을 하면 한국과 교회를 대표하는 귀한 선교의 장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년간 한적한 곳에 주택을 주셨고 또 가격도 기대 이상으로 저렴해 감사했는데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집주인이 사업상 일본에 체재중인데 이번에 불경기로 귀국하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 여러 번 차에 돌을 맞아 인명에 상처도 있었고 또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34Km 떨어진 관제로 유류대도 상당히 지출되는 점을 참작해 8월 1일에 예루살렘 근교로 이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실을 겸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근교도 월세가 비싼 실정입니다.

또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뉴저지 개혁장로교회 집회 및 다른 지역 초청집회로 약 2주간 미국에 다녀오게 됩니다. 은혜로운 집회를 위해 기도해주시 바랍니다.

